

친애욕구에 따른 삼자관계의 지각차이

고재홍¹

경남대 사회과학부

본 연구는 개인차 변인인 친애욕구에 따라 균형상태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차재호(1983)의 친애욕구 척도를 이용하여 구분한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과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에게 각각 8가지 가상적 삼자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1에서는 사물이 포함된 삼자관계(P-O-X관계)와 모두가 사람으로 구성된 삼자관계(P-O-Q관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1에서는 가상적 삼자관계에 대한 유쾌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였고, 연구 2에서는 기대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에서는 P-O-Q관계에서는 친애욕구에 따른 균형효과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P-O-X관계에서는 친애욕구에 따른 균형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P-O-Q관계만을 사용하였고, 기대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연구 2에서도 연구 1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속변인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였다.

주제어 : 친애욕구, 삼자관계, 균형효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와 의견이 맞는 사람들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과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람보다는 일치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예: Byrne, 1971). 사람들은 주변환경이 서로 적합하고 논리적이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사람들 자신의 신념, 인지, 사고, 및 감정의 일치에도 적용된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타인과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일치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예: Kenny & Kashy, 1994; Newcomb, 1953).

일찍이 Newcomb(1953)은 두 친구들(예를 들어 A와 B)간에는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동지향(co-orientation)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즉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X)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태도를 지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후에 Heider(1958)의 균형이론(balance theory)으로 발전하게 된 Newcomb의 소위 A-B-X 이론에 따르면, A와 B는 어떤 대상(X)이외에도 제 3의 인물(Q)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Heider(1946)는 처음으로 인지적 일관성(cognitive consistenc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불일치한 인지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감정과 일치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처음에 Heider는 태도변화 이론의 하나로 이 이론을 정립하였고,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이론과 함께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인지 일관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두 개의 인지를 지닌 경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¹ 교신저자 : 고재홍(631-701 경남 마산시 월영동 경남대 사회과학부, kopsy@kyungnam.ac.kr)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불일치를 일치로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후에 Heider(1958)는 2자 관계(dyad)와 3자 관계(triad)에서 의견이나 태도의 일치에 대한 개념으로 균형(bal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균형 상태를 “지각된 단위와 경험된 감정관계들이 긴장 없이 공존하는 상황(Heider, 1958, p. 176)이라고 정의하였다. Heider에 의해 균형이론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에는 주로 자신(P)과 상대방(O)의 태도일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태도 대상(X)은 주로 비인적인 대상(impersonal entity)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에 Heider의 균형이론이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이론으로 발전함에 따라 세 사람간의 호감관계를 다루기 위해 제 3의 인물을 포함시켰다. 균형이론에서는 비인격적 대상 대신에 제 3의 인물을 사용할 때는 그것의 기호를 X대신 Q를 사용한다.

Heider는 이러한 삼자관계의 각 쌍의 관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하나는 감정관계(sentiment re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단위관계(unit relation)이다. 감정관계는 느낌(타인이나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단위관계는 대상들의 연결 지각을 포함한다. 또한 Heider는 단위관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하나는 선택의 결과로 생기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관계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균형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삼자간의 감정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Heider의 균형이론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삼자관계에서 개인(P)이 다른 사람(O)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어떤 대상(X)에 대해서 P와 O의 태도가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사회상황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을 다루어 왔다(예: 홍대식, 1980). 개인(P), 타인(O), 및 어떤 대상(X)으로 구성되는 삼자관계는 서로 균형(balance)상태일 수도 있고, 불균형(unbalance 혹은 imbalance)상태일 수도 있는데, 삼자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P-O, P-X, 및 O-X의 세 관계 중 부적 관계가 하나도 없거나, 그 수가 짝수일 때 삼자관계는 균형을 이룬다고 하였다. 반면에 한 관계가 부적이고 두 관계는 정적일 때, 혹은 세 관계가 모두 부적일 때 삼자관계는 불균형상태이다. 균형으로 향한 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들과 동의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부동의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끔 만든다는 것이었다. 대체로 사람들은 불균형관계보다는 균형관계에 대해 더 유쾌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Heider의 균형이론은 Jordan(1953)에 의해 최초로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는 P-O, P-X, 및 O-X의 3가지 관계의 부호를 조합으로 8개의 삼자관계 상황을 만든 다음에 피험자에게 유쾌도를 평정시킨 결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균형상황을 불균형 상황보다 더 유쾌하게 판단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Newcomb(1968)은 Heider의 균형이론을 검증하였던 이전의 연구들을 검토, 수정하면서 개인(P)과 타인(O)간의 관계가 부적(-)일 때는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이런 삼자관계 상황을 불쾌하게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Newcomb은 균형과 불균형의 중간에 위치하는 비균형(nonbalance)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타인(O)이 개인(P)이 싫어하는 사람인 상황(즉 P-O 관계가 -인 상황)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비교적 약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상황인 경우, 우리는 단지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게 되고 그와 의견이 일치되든 혹은 불일치되든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음이 시사하는 것이다(Crockett, 1982 참조).

Rodrigues(1967)는 균형이론의 검증에서 2요인(P-O관계의 부호, P-Q와 O-Q의 태도일치 여부) 변량분석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몇몇 예외(예: 정지원, 1988; Cacioppo & Petty, 1981)도 있지만, 그 이후의 균형이론을 검증하려는 시도의 대부분 연구들(예: 장영수, 1984; 홍대식, 1988; 1991; Crockett, 1974; Fuller, 1974)에서 사용되는 분석방법도 P-O관계의 효과(positivity effect), P-X와 O-X관계의 일치효과(agreement effect), P-O관계와 일치간의 상호작용 효과(즉 balance effect)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Zajonc, 1968 참조). Zajonc(1968)은 삼자관계에서 균형효과 이외에도 P-O관계와 일치효과간의 상호작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들 세 가지 효과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Cha, Park, 및 Kim(1997)은 P(나)-O(상대방)-Q(표적 대상)가 포함된 삼자관계에서 P가 O에게 Q에 관해 말할 때, '우리(의)'와 '내(나의)'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상대방과의 친숙도 효과를 발견하였다. 즉 자신

과 친숙한 상대방과의 대화할 때, '내(나의)'보다는 '우리(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일상 담화 속에 동지향(co-orientation)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친숙한(+) 상대방에게 제 3자(Q)를 "우리 Q"라고 말하는 것은 나(P)와 상대방(O)이 표적대상(Q)에 대해 동지향하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삼자간의 단합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에 잘 모르는 (혹은 싫어하는) 상대방에게는 "내 Q"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동지향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내(나의)"라는 말은 삼자관계에서 상대방(O)을 배제시키는 이자(P와 Q) 단합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즉 P-Q는 +이지만 O-Q를 -로 만든다. 다시 말해 상대방(O)을 삼자관계에서 배제시키는 P-Q 단위관계가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의 사용은 일종의 동맹(coalition)형성을 의미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Kenny와 Kashy(1994)는 자신과 상대방(즉 P-O)이 친구사이인 경우(+관계)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도 -도 아닌 관계)보다 제 3자인 Q의 성격(27개의 성격특질)에 대해 서로 유사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여 대인지각(성격지각)에서 동지향 추구 경향성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균형이론의 검증에 사용된 종속변인들

홍대식(1980)은 Heider의 균형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에서 사용된 종속변인들의 유형을 (1) 유쾌도(pleasantness) 평정, (2) 일관성(consistency) 평정, (3) 기대도(expectancy) 평정, (4) 안정도(stability) 평정, (5) 주어진 상황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관계와 그 정도, (6) 미완성 관계의 완성 예언, (7) 관계의 학습이나 기억, 및 (8) 자연적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측정적(sociometric) 선택이나 평정 등 8종류로 나누었다.

이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종속변인은 균형된 상태가 조화로운 상태이고 균형상태가 불균형상태보다 선호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제시된 상황에 대한 유쾌도 평

정'이다. Jordan(1953)은 균형상태가 불균형상태보다 더 유쾌하게 평정된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예외적인 결과도 있었다. 즉 P-O관계가 부적인 경우는 균형상태이든 불균형상태이든 상황을 매우 불쾌하게 지각했으며, 때로 부적인 관계에서도 불균형상태가 유쾌하게 지각되기도 하였다. 유쾌도를 사용한 그 뒤의 연구들(예 : Aderman, 1969; Crano & Cooper, 1973; Crockett, 1974; Gutman & Knox, 1972; Insko & Adewole, 1978; Price, Harburg & Newcomb, 1966; Rodrigues, 1967)에서도 균형상태가 불균형상태보다 더 선호된다는 균형이론의 예언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Jordan(1953)이 균형을 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유쾌도보다는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조화로운" 상태로 제안한 이후, 상황의 일관성, 기대도, 및 안정도 등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종속변인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였다(균형이론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 대한 내용은 홍대식, 1985참조). 상황의 일관성 평정 연구들(예: Gutman & Knox, 1972; Miller & Norman, 1976)과 기대도 평정 연구(예: Crockett, 1974), 그리고 안정도 평정 연구(예: Crano & Cooper, 1973)에서는 대체로 긍정성 효과나 일치 효과보다 균형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남으로써 감정적인 종속변인인 유쾌도 평정을 사용한 연구들보다 균형이론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불균형상태인 경우는 이를 균형상태로 변화시키려 한다는 Heider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몇 연구들(예: 정지원, 1988; Burnstein, 1967; Rodrigues, 1967)에서는 삼원구조의 세 관계 중 어느 하나를 수정함으로써 불균형상태를 균형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관계수정을 종속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정지원(1988)은 피험자들에게 균형과 불균형상황을 제시하고 각 관계의 수정의사를 물은 결과, 균형상황에서 보다는 불균형상황에서의 수정의도가 더 높았다. Burnstein(1967)의 연구에서는 균형으로 향한 변화가 불균형으로 향한 변화보다 훨씬 많았으며 부적 관계를 정적 관계로 수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Burnstein의 연구에서는 P를 피험자 본인이 아닌 어떤 가상적인 인물로 정의하였다. 피험자 본인이 아닌 가상적 인물의 입장에서 삼원구조

1)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호의 순서는 P-O, P-X(혹은 P-Q), 및 O-X(혹은 O-Q)의 순서이다. 예를 들어 ++인 경우, P-O관계가 +, P-X관계가 -, 및 O-X관계가 +인 상황을 의미한다.

를 보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이 P-O나 O-X 관계를 수정할 때 그것들을 P-X의 부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홍대식(1988, 1989, 1991)과 Fuller(1974)와 같은 학자들은 삼원구조의 세 관계 중 두 관계가 제시되면 나머지 한 관계가 균형방향으로 예측될 것이라는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느 한 관계가 누락된 미완성 관계의 예측을 종속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홍대식의 연구(1989)에서 대학생 피험자들로 하여금 P-O-X관계 중 누락된 관계를 예측하도록 했을 때, 균형방향으로의 예측이 더 우세하였으며, 이런 경우 예측의 확신도 높았다. Fuller(1974)의 연구에서는 미완성 관계를 균형상태로 완성하는 경우가 불균형으로 완성하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 균형이론을 지지하였다.

균형상태가 불균형 상태보다 더 안정적 관계이므로 사람들이 그 상태를 더 잘 기억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결과들은 일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Zajonc와 Burnstein(1965)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균형상태를 불균형상태보다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erard와 Fleischer(1967)의 연구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삼자관계에서의 친애욕구 효과

초기 학자들은 친애욕구(need for affiliation)²⁾를 타인(들)과 감정적으로 좋은 관계를 설정, 유지, 혹은 회복하려는 욕구로 정의하고 있다(예: Atkinson, Heyns, & Veroff, 1954). Atkinson 등(1954)은 친애욕구를 개인이 지닌 사교성, 외향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배척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동기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위안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2) 한 심사위원께서 need for affiliation의 번역을 '친애'로 할 때, 이는 친밀히 사랑함의 뜻으로 affiliation의 원래 의미가 아니므로 '친화(親和)'로 번역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타당한 지적으로 인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예: 장영수, 1984; 차재호와 정지원, 1990)에서 이를 '친애'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에게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Crowne & Marlowe, 1964).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학자들(예: McAdams, 1980)은 친애욕구를 승인욕구(need for approval)와 친밀욕구(need of intimacy)로 구분하였고, 후자의 경우를 타인과 따뜻하고 친밀한 의사소통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로 보았다. McAdams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여러 연구들(예: McAdams, 1980; McAdams & Constantian, 1983; McAdams, Healy, & Kraus, 1984)에서 승인욕구가 높은 사람은 갈등이나 경쟁상황을 회피하고(김영미·윤진, 1990), 타인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이타적 방식으로 행동하는 반면, 친밀욕구가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공개가 크며, 보다 의미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도 더 많이 웃으며, 상대를 더 많이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Reeve, 1997 참조).

한편 Hill(1987)은 친애동기가 생기는 원인은 (1) 남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위해서, (2) 타인에게 자신이 관심있고 호기심을 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3) 우리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하여, (4) 마지막으로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주목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친애동기를 4가지 원인별로 측정하는 친애동기 척도도 제작하였다.

이상에 보듯이 인지 일관성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치상태를 불일치 상태보다 선호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불일치 상황에서 같은 정도로 불쾌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Cialdini, Trost, 및 Newsom(1995)은 일치선호(preference for consistency) 척도를 이용하여 일치선호의 개인차가 부조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여 주는 반응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치선호가 큰 사람들이 부조화 감소(즉 태도변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또한 Newby-Clark, Mc-Gregor, 및 Zanna(2002)는 일치선호가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에 비해 부조화상황을 더 불편하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시사하듯이 삼자관계의 지각에서도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예외(예: 장영수, 1984)에도 불구하고 균형관계의 지각에서 나타나는 개인차 변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Festinger(1954)는 사람들에게는 자

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모이려 하고, 이때 비교대상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또한 Mehrbain(1970)에 따르면, 친애 경향성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경향의 강도를 의미한다. 그는 친애욕구 척도를 사용하여 친애경향성과 친애행동이 관련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과 비슷한 태도를 지닌 사람(++ 혹은 --)을 좋아할 것이다. 결국 이때 P-O관계가 +일 것이므로 +++ 혹은 +-구조가 되고 이것들은 삼자관계 중 대표적인 균형상황이다. 즉, 균형관계의 선호에 대한 개인차를 보여줄 수 있는 조정변인(moderator) 중 하나가 친애욕구일 가능성이 있다.

장영수(1984)는 친애욕구에 따라 균형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균형효과는 친애욕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균형이론이 제안하는 P-O-X의 3자 관계에서 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클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유쾌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장영수(1984)의 연구에서 사용한 삼자관계는 두 사람과 X(사물)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모두가 사람들로 구성된 삼자관계를 다루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친애욕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간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McAdams, 1980). 그러므로 사물(X)이 포함된 삼자관계(P-O-X)보다는 삼자관계 속의 대상이 전부 사람들로만 구성된 삼자관계(P-O-Q)에서는,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균형을 더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즉 P-O-X관계보다는 P-O-Q관계에서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불균형 관계보다는 균형관계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장영수의 연구(1984)에서 친애욕구에 따른 균형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삼자관계의 구성을 P-O-Q관계가 아닌 P-O-X로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친애욕구에 따른 균형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P-O-X삼자관계 이외에도 P-O-Q삼자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사물이 포함된 삼자관계(P-O-X관계)에서는 친애욕구에 따라 균형효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나, 모든 요소가 사람들로 구성된 삼자관계(P-O-Q관계)에서는 친애욕구에 따라 균형효과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P-O-Q관계에서만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이 친애욕구가 낮은 사람에 비해 균형관계를 더 유쾌하게 평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법 및 절차

피험자 연구 1의 피험자들은 경남대학생 58명이었다. 이들은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로서 친애욕구 측정결과에 따라 상하위 각각 35%씩 선발하여 최종적으로는 4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들 중 20명(친애욕구에 따라 각각 10명)에게는 P-O-X상황이 제시되었고, 나머지 20명에게는 P-O-Q상황이 제시되었다.

친애욕구의 측정

Mehrbain(1970)은 친애동기는 (1)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친애경향성(affiliative tendency)과 (2) 남들에게 배척 당하거나 비판받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과의 교류에 대해 불안과 걱정하는 배척민감성(sensitivity to rejection)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는 이들 두 요인이 서로 독립적이며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강화를 받을 것에 대한 일반적 기대를 측정하는 친애경향성 척도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강화를 받을 것에 대한 일반적 기대를 측정하는 배척민감성 척도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친애욕구의 측정을 위해 Mehrbain(1970)의 친애욕구 척도(Need-affiliation Scale)를 차재호(1983)가 번안하고 수정하여 새로 제작한 것으로 각 피험자에게 평정시켰다. 친애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에는 전체 44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이들 44문항은 친애경향성과 거절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두 하위 요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전체 44개의 문항은 친애경향성을 측정하는 21개의 문항과 거절에 대한 민감도

를 측정하는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들에게는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9점 척도[매우 강한 반대(-4)~매우 강한 찬성(+4)]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친애경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에게는 친구 사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중요한 자리이긴 하나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하기 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이긴 해도 친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겠다” 등으로 이 물음들에 “그렇다”라고 응답하면 친애동기가 높은 것이다. 배척 민감성 측정문항은 “나는 가끔 남의 비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나는 여럿이 모여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 내 심정을 숨기지 않고 말한다” 등으로 앞의 물음에는 “그렇다” 뒤의 문항에는 “아니다”라고 응답하면 배척동기가 높은 것이다.

차재호(1983)가 번안 및 제작한 친애육구 평정척도의 Cronbach의 내적 합치도(internal consistency, α)는 대학생 집단에서 .81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차재호·정지원(1990) 참조). 연구 1에서는 친애경향성 점수가 상위 35%인 사람들을 친애동기가 높은 사람(20명)으로 정의하였고 하위 35%인 사람들(20명)을 친애동기가 낮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재료 및 절차

사전에 친애육구 측정을 통해 선정된 피험자들에게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지시대로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설문지는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무선배정된 한 조건의 피험자들은 대상이 사물인 P-O-X 설문지를 받았으며, 다른 한 조건의 피험자들은 대상이 제 3의 인물(Q)인 P-O-Q 설문지를 받았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여러 가지 대인관계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삼자관계의 지각평정

먼저 P-O-X 조건의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설문지는 모두 9쪽으로서 첫 쪽은 삼자관계 평정에 대한 지시문 이었고 나머지 8쪽의 매 쪽마다 한 가지 삼자관계 상황이 묘사되어 있었다. 지시문에서는 먼저 “이 설문지는

가상적인 사회관계에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제시되는 3개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반응을 척도 위에 체크(V)해 주십시오 먼저 괄호 속에 다음과 같이 적어 넣으십시오” 라고 지시한 후, 1이라고 표시한 것에는 여러분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을, 2이라고 표시한 것에는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명으로 적어 넣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삼자관계의 상황의 예(+/- 상황)는 피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다. “나는 (1)을 매우 싫어한다. 나는 어떤 것(X)을 매우 좋아한다. (1)은 이것(X)을 매우 좋아한다. 여기서 X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당신과 어떤 사람이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는 사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당신은 얼마나 유쾌(혹은 불쾌)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묻고, 매우 불쾌하다(1)에서 매우 유쾌하다(11)의 11점 척도상에 반응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삼자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8상황의 순서는 설문지마다 무선적으로 배열하였다.

P-O-Q 조건의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설문지도 위의 것과 대체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먼저 다음에 제시된 모든 괄호 속에 다음과 같이 적어 넣으십시오”라는 지시 후에, 1이라고 표시한 것에는 여러분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 2이라고 표시한 것에는 여러분이 매우 싫어하는 또 다른 사람, 3이라고 표시한 것에는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사람, 4이라고 표시한 것에는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명으로 적어 넣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삼자관계의 상황의 예는 피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다. “나는 (1)을 매우 싫어한다. 나는 (3)을 매우 좋아한다. (1)은 (3)을 매우 좋아한다.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당신은 얼마나 유쾌(혹은 불쾌)할 것 같습니까?”라고 묻고 매우 불쾌하다(1)에서 매우 유쾌하다(11)의 11점 척도상에 반응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역시 삼자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8상황의 순서는 설문지마다 무선적으로 배열하였다.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Rodrigues(1967)가 제안한 이후에 균형이론의 검증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2요인(P-O관계

의 부호, P-Q와 O-Q의 일치 여부)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P-O관계의 효과, P-X와 O-X관계의 일치(agreement)효과, 및 P-O관계와 일치간의 상호작용 효과(즉 균형효과)를 알 수 있다. 이때 이들 세 가지 효과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3 요인 이외에 개인차 변인인 친애욕구를 집단간 변인으로 추가한 2×(2×2)의 반복측정이 포함된 연구설계(즉 split-plot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였다. 친애욕구, 삼자관계 유형, P-O관계, 및 P-X(혹은 Q)와 O-X(혹은 Q)간의 일치여부에 따른 유쾌도 평정의 평균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친애욕구에 따른 P-O-X 및 P-O-Q 상황의 유쾌도 평균치

		친애욕구 상(n=20)		친애욕구 하(n=20)			
관계유형\일치여부		P-O(+)	P-O(-)	전체	P-O(+)	P-O(-)	전체
P-O-X	일치	6.90*	6.79	6.85	6.85	6.80	6.83
	불일치	5.45	4.50	4.98	5.24	4.49	4.87
	전체	6.18	5.65	5.92	6.05	5.65	5.85
P-O-Q	일치	9.35	5.30	7.33	7.35	5.80	6.83
	불일치	4.05	6.51	5.28	4.70	4.55	4.87
	전체	6.70	5.91	6.31	6.03	5.18	5.61

*수치는 가상적 삼자관계 상황에 대한 유쾌도(매우 불쾌하다 1~매우 유쾌하다 11) 평정치임.

전체 가상적 삼자관계에서의 유쾌도를 2(친애욕구)×2(관계유형)×2(P-O관계)×2(일치여부)를 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개의 관계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특히 4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이후의 분석에서는 P-O-X관계에서의 유쾌도 평정과 P-O-Q관계에서의 유쾌도 평정을 분리하여 변량분석하였다.

P-O-X관계에 대한 유쾌도 평정

피험자들을 친애욕구 척도의 점수에 따라 두 집단(친애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한 다음, 8개 P-O-X에 대한 가상적 삼자관계 상황에 대한 유쾌도 평정치를 2(친애욕구)×2(P-O관계)×2(X에 대한 P와 O의 태도일치도) 변량분석하였다.

유쾌도 평정치를 변량분석한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P-O관계가 +인 조건(M=6.11)이 -인 조건

(M=5.64)보다 제시된 삼자관계를 더 유쾌하게 평정하였다, $F(1, 18) = 9.21, p < .01$. 둘째, P-X관계와 O-X관계가 일치하는 상황(M=6.84), 즉 두 관계가 모두 +이거나 모두 -인 상황을 두 관계가 불일치하는 상황(M=4.50)보다 유쾌하게 평정하였다, $F(1, 18) = 22.65, p < .01$. 셋째, P-O관계와 일치여부간의 상호작용 효과(균형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8) = 29.01, p < .01$. 여기에서 P-O관계가 +일 때는, P-X와 O-X가 일치할 때(+++와 +--)가 균형상태이고, P-O관계가 -일 때는, P-X와 O-X가 불일치할 때(-+-와 --+)다 균형상태이다. 나머지 경우는 전부 불균형상태이다. 이 결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불균형상태일 때(M=6.07)가 균형상태일 때(M=5.69)보다 제시된 삼자관계를 더 유쾌하게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즉 일반적인 균형효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³⁾.

주목할 점은 친애욕구는 주 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주지 않았다. 특히 친애욕구에 따른 P-O관계와 일치도의 상호작용(즉 균형효과)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친애욕구에 따른 P-O-X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장영수(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P-O-Q관계에 대한 유쾌도 평정

P-O-X관계에서의 마찬가지로 피험자들의 8개 P-O-Q에 대한 가상적 삼자관계 상황에 대한 유쾌도 평정치를 2(친애욕구)×2(P-O관계)×2(X에 대한 P와 O의 태도일치도) 변량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P-O-X관계에 대한 유쾌도 평정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P-O-Q관계에 대한 유쾌도 평정에서도 P-O관계의 주효과, P-X와 O-X관계간의 일치도 효과, 균형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즉 P-O관계가 -인 조건(M=5.55)보다 +인 조건(M=6.37)에서 유쾌도가 더 높았으며, $F(1, 18) = 10.07, p < .01$, P-X관계와 O-X관계가 일치하는 상황(M=7.08), 즉 두 관계가 모두 +이거나 모두 -인 상황에서 두 관계가 불일치하는 상황(M=5.08)에

3) 이는 예상과 다른 결과로서, P-O-X 관계에 대한 유쾌도 평정치를 사용하였던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예: Aderman, 1969; Crano & Cooper, 1973; Crockett, 1974; Gutman & Knox, 1972; Insko & Adewole, 1978; Price, Harburg & Newcomb, 1966)에서 균형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결과가 나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서보다 유쾌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F(1, 18)=28.73$, $p<.01$. 그러나 균형효과의 경우 P-O-X관계의 유쾌도 평정과는 달리 균형상태($M=6.83$)를 불균형 상태($M=4.98$)보다 더 유쾌하게 평정하였다, $F(1, 18)=90.59$, $p<.01$.

또한 P-O-Q관계에 대한 유쾌도 평정에서는 친애욕구, P-O관계 유형, 및 P-Q와 O-Q의 일치도 간의 3원 상호작용 효과(즉 친애욕구와 균형효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8)=35.01$, $p<.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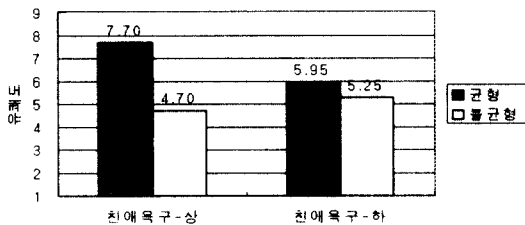


그림 1. 친애욕구에 따른 균형 및 불균형 상황에 대한 유쾌도

이를 단순 주효과 검증한 결과, 위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에서는 균형상태($M=7.70$)를 불균형 상태($M=4.70$)보다 더 유쾌한 상황으로 평정하였다, $F(1, 9)=10.64$, $p<.01$. 그러나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의 경우는 균형상태($M=5.95$)와 불균형 상태($M=5.25$)간의 유쾌도 평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ns . 즉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에서만 분명한 균형효과(즉 균형상태를 불균형 상태보다 더 유쾌하게 지각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 1은 친애욕구가 삼자관계의 지각에서 어떤 요인들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유쾌도 평정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연구 1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O관계가 +인 조건이 -인 조건보다 관계를 유쾌하게 지각하며, P-X(혹은 P-Q)와 O-X(혹은 O-Q)가 일치하는 경우가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관계를 유쾌하게 평정하였다. 둘째, P-O관계와 일치여부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이는 삼자관계가 균형상태 일 때를 불균형일 때보다 더 유쾌하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P-O-X관계에서와는 달리 P-O-Q관계에서는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균형상태를 불균형 상태보다 더 유쾌하게 평정하였다.

연구 2

연구 1에서 종속변인을 유쾌도 평정으로 하여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균형관계를 더 유쾌하게 지각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 2에서는 모두가 사람들로 구성된 삼자관계(P-O-Q)만 선택하여 연구 1과는 달리 종속변인을 기대도 평정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Insko 등(1978)이 균형연구의 종속변인을 크게 정서적인 것과 인지적인 것으로 나누었고, 연구 1에서 사용된 유쾌도는 정서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하나 즉 대표적인 인지적 측면의 종속변인을 사용하여 연구 1의 결과를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연구 1에서는 균형이론의 검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P-O-Q관계에서 피험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적어 넣도록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 1과 달리 삼자관계의 구성요소를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인으로 묘사하지 않고 가상적인 사람(예: A라는 사람)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A)를 매우 싫어한다. 나는 (B)를 매우 좋아한다. (A)는 (B)를 매우 좋아한다.”와 같은 상황(+++ 상황)을 제시하였다. 연구 1에서 P-O-X상황에서는 균형에 대한 친애욕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P-O-Q상황에서는 균형에 대한 친애욕구 효과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삼자관계의 제시 차이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균형이론을 검증한 기존연구의 결과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게 삼자관계 상황을 제시하였다.

연구 2에서도 P-O-Q관계에서 불균형 상태보다 균형 상태를 더 기대(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기대하는 정도)하는 균형효과는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이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법 및 절차

피험자

경남대학교에 재학중인 101명의 학생이었고, 친애욕구 점수를 근거로 상위 35명과 하위 3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자료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친애육구 측정을 위한 설문지였고, 두 번째 설문지는 가상적 사회상황의 삼자관계에 대한 기대도 평정을 위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설문지를 피험자에게 나누어주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친애육구 측정

친애육구의 측정은 연구 1과 동일하였다.

삼자관계의 지각평정

삼자관계에 대한 평정치는 모두 9페이지로 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는 삼자관계 평정에 대한 지시문이 제시되어 있었다. 지시문은 “이 설문지는 사람들이 가상적 사회관계에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 A, B사이의 관계로 구성된 8종류의 대인관계를 묘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A는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거나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B는 특정인이 아니고 여러분과 A가 매우 좋아하거나 매우 싫어할 수 있는 제 3자입니다. 제시되는 3개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반응을 척도 위에 체크(V)해 주십시오.”이었다. 2쪽에서부터 9쪽까지는 8개의 삼자관계 상황이 한 장에 하나씩 나와 있었다. 삼자관계의 상황 예(++ 상황)는 다음과 같다. 나는 (A)를 매우 싫어한다. 나는 (B)를 매우 좋아한다. (A)는 (B)를 매우 좋아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기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의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있을 수 없다 (1)에서 흔히 있을 수 있다(11)까지의 11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삼자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8 상황의 순서는 무선적으로 배열하여 제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8개의 가상적 삼자관계의 사회상황에 대한 피험자들의 기대도 평정의 결과의 평균이 표 2이다.

표 2. 친애육구에 따른 P-O-Q 상황의 기대도 평균치

일치여부	친애육구 상(n=35)		친애육구 하(n=35)			
	P-O(+)	P-O(-)	전체	P-O(+)	P-O(-)	전체
일 치	8.74*	7.04	7.89	8.24	6.87	7.56
불일치	6.33	7.20	6.77	7.00	6.71	6.86
전 체	7.54	7.12	7.33	7.62	6.79	7.21

*수치는 가상적 상황에 대한 기대도(전혀 있을 수 없다 1~흔히 있을 수 있다 11) 평정치임.

기대도를 2(친애육구)×2(P-O관계)×2(X에 대한 P와 O의 태도일치도) 변량분석하였다. 변량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O관계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68)=23.77, p<.01$. 즉 P-O관계가 +인 조건 ($M=7.58$)이 -인 조건($M=6.96$)보다 더 기대된다고 평정하였다. 둘째, P-Q관계와 O-Q관계간의 일치도 효과가 나타났다, $F(1, 68)=25.85, p<.01$. 즉 P-Q관계와 O-Q관계가 일치하는 상황($M=7.73$) 즉, 두 관계가 모두 +이거나 모두 -관계일 때가 둘이 불일치 하는 상황($M=6.82$)보다 그 상황이 더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평정하였다. 셋째, P-O관계와 Q에 대한 P와 O의 태도일치도간의 상호작용 효과(균형효과)가 유의하였다, $F(1, 68)=24.84, p<.01$. P-O관계가 +일 때는 P-Q관계와 O-Q관계가 일치할 때(++와 +--)가 균형상태이고, P-Q관계와 O-Q관계가 불일치할 때(++와 --)는 불균형상태이다. 반면에 P-O관계가 -일 때는 P-Q관계와 O-Q관계가 불일치할 때(-+와 --)가 균형상태이고 P-Q관계와 O-Q관계가 일치할 때(++와 --)가 불균형상태이다. 이 결과는 피험자들이 균형상태($M=7.72$)를 불균형 상태($M=6.81$)보다 더 기대되는 상황으로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즉 이 차이가 일반적인 균형효과이다.

기대도 평정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친애육구와 P-O관계 유형과 일치도간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는 것이다, $F(1, 68)=4.10, p<.05$. 즉 이는 친애육구에 따른 균형상태의 기대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이를 단순 주효과 검증한 결과, 위의 그림 2에서와 같이, 친애육구가 높은 집단에서는 균형상태($M=8.00$)를 불균형상태($M=6.70$)보다 더 기대되는 상황으로 평정하였다, $F(1, 34)=6.45, p<.01$. 그러나 친애육구가 낮은 집

단의 경우는 균형상태($M=7.50$)와 불균형 상태($M=7.00$) 간의 기대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34)=2.01, ns$. 이는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이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에 비해 균형효과를 기대하는 정도가 더 클 것이라는 연구 2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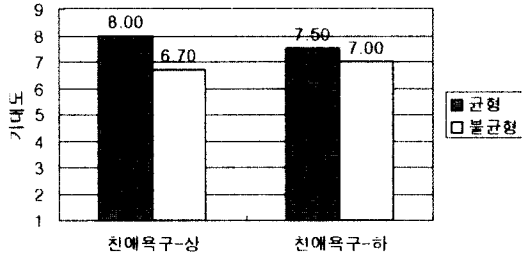


그림 2. 친애욕구에 따른 균형 및 불균형 상황에 대한 기대도

전체 논의

본 연구는 친애욕구에 따라 삼자관계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1의 유패도 평정과 연구 2의 기대도 평정의 결과들 중 공통된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O관계가 +인 조건이 -인 조건보다 더 유패하게, 더 기대되는 것으로 평정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긍정성효과(positivity effect)이다. 둘째, P-Q관계와 O-Q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이 불일치하는 상황보다 더 유패하게, 더 기대되는 것으로 평정하였다. 이것은 일치도효과(agreement effect)이다. 마지막으로 P-O-Q관계에서는 P-O관계와 일치도간에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P-O관계가 +일 때는 P-Q관계와 O-Q관계가 일치할 때(++와 +-)가 균형이고, P-O관계가 -일 때는 P-Q관계와 O-Q관계가 불일치할 때(-+와 --)가 균형이다. 나머지 상황은 모두 불균형 상황이다. 이 결과는 균형상태가 불균형상태 보다 더 유패하게, 그리고 더 기대되는 상황으로 평정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대체로 일치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친애욕구에 따른 균형 효과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것은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균형상태를 기대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균형상태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조정변인(moderator) 중 하나가 친애욕구일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친애욕구는 P-O관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주지 않았으며, 친애욕구는 Q에 대한 P와 O의 태도일치도와의 상호작용도 보여 주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지 일관성이론에서 사람들이 일치상태를 불일치 상태보다 더 선호하는 정도에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예 : Cialdini, Trost, & Newsom, 1995; Newby-Clark, McGregor, & Zanna, 2002)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사물이 포함된 태도에서보다는 삼자관계가 모두 사람들로 구성된 대인관계에서 친애욕구가 균형을 선호하는 정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개인차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친애욕구에 따른 균형효과와의 차이를 알아 본 연구들(장영수, 1984; 정지원, 1988)에서는 모두 친애욕구와 균형효과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장영수의 연구(1984)에서 친애욕구에 따른 균형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상적 삼자관계의 모든 요소가 사람들로 구성된 삼자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연구 1의 P-O-X상황에서도 친애욕구에 따른 균형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점은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삼자관계의 모든 요소를 모두 사람으로 사용한 정지원(1988)의 연구에서는 변화유무와 관계수정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대체로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균형 쪽으로 제시된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크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지원의 연구(1988)에서 전체적으로는 균형으로의 연계수정 점수가 불균형으로의 연계수정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친애욕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두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인의 질적 차이(연계수정 對 기대도)에 기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odrigues (1967)는 제시된 삼자관계에서 각 관계를 얼마나 수정하고 싶어하는지를 묻은 결과, P-O관계의 수정 점수가 P-O관계의 부호에 따라 달라졌으나 일치나 균형 여부에 따라서는 수정점수가 차이가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균형이론의 검증에 사용된 종속변인들은 모두 8유형(홍대식, 1980참조)으로서 중

속변인에 따라 균형효과가 잘 나타나는 경우(예 : 기대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예 : 유쾌도, 회상). 이것은 앞으로 이들 종속변인간의 질적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단지 연구 1과 2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친애욕구에 따른 균형효과의 차이는 기대도보다는 유쾌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경우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1에서는 예상과 달리 P-O-X관계에서는 균형상태보다 오히려 불균형 상태를 더 유쾌하게 평정한 반면, P-O-Q관계에서는 예상대로 불균형상태보다 균형상태를 더 유쾌하게 평정하였다. P-O-X관계를 다루고 유쾌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기존의 일부 연구들(예: Aderman, 1969; Crano & Cooper, 1973)에서 균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적은 있으나, 본 연구 1과 같이 반대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는 없었다. 현재까지 이런 상충된 연구결과의 이유를 알 수 없다.

참 고 문 헌

- 김영미 · 윤진(1990). 친애동기와 권한이 협동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06-115.
- 장영수(1984). 가상적 사회상황에서의 삼자관계의 지각과 친애욕구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원(1988). 연계수정으로 본 Heider 삼원구조내의 태도연계와 신념연계의 질적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재호(1983). 동기진단검사. 서울 : 전인교육발전연구소.
- 차재호 · 정지원(1990). 친애욕구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도 보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9.
- 홍대식(1980). 타인과 대상에 대한 호오강도가 삼자관계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대식(1985). 삼원적 사회관계에서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의 역학과 대인관계의 과정. *사회심리학회지*, 2, 61-93.
- 홍대식(1988). 삼원적 사회관계 중의 미완성 관계들의 예언에서의 균형효과, 불확실감, 및 예언이유들. *사회심리학회지*, 4, 197-211.
- 홍대식(1989). P-O-X 구조들 중의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에 관련된 몇 가지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50-69.
- 홍대식(1991). 사회적 관계들과 타인의 특성에 대한 추론의 방향과 확산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68-182.
- Anderman, D.(1969). Effects of anticipating future interaction on the preference for balanc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214-219.
- Atkinson, J. W., Heyns, R. W., & Veroff, J.(1954). The effect of experimental arousal of the affiliation motive on thematic ap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405-410.
- Burnstein, E.(1967). Sources of cognitive bias in the representation of simple social structures : Balance, minimal change, positivity, reciprocity, and the respondent's own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36-48.
- Byrne, D.(1971). *The attraction paradigm*. NY: Academic Press.
- Cacioppo, J. T., & Petty, R. E.(1981). Effects of extent of thought on the pleasantness ratings of P-O-X triads : Evidence for three judgmental tendencies in evaluating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000-1009.
- Cha, J. H., Park, J. H., & Kim, J. H.(1997).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use and meanings of the terms "our" and "my" from collective research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2n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6, Tokyo, Japan.
- Cialdini, R. B., Trost, M. R., & Newsom, T. J.(1995). Preference for consistency : The development of a valid measure and discovery of surprising behavioral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318-328.
- Crano, W. D., & Cooper, R. E.(1973). Examination of Newcomb's extension of structural balance theory.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344-353.
- Crockett, W. H.(1974). Balance, agreement, and subjective evaluations of P-O-X tria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102-110.
- Crockett, W. H.(1982). Balance, agreement, and positivity in the cognition of small group structure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5). NY: Academic Press.
- Festinger, L.(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117-140.
- Festinger, L.(1958).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Fuller, C. H.(1974). Comparisons of the two experimental paradigms as tests of Heider's balance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802-806.
- Gerard, H. B., & Fleischer, L.(1967). Recall and pleasantness of balanced and unbalanced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332-337.
- Guttman, G. M., & Knox, R. E.(1972). Balance, agreement and attraction in the pleasantness, tension, and consistency ratings of hypothetical social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351-357.
- Heider, F.(1946). Attitude and cognitive organization. *Journal of Psychology*, 21, 107-112.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Y: Wiley.
- Hill, C. A.(1987). Affiliation motivation : People who need people but in different wa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08-1018.
- Insko, C. A., & Adewole, A.(1978). The role of assumed reciprocation of sentiment and assumed similarity in the production of attraction and agreement effects in P-O-X tria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790-808
- Jordan, N.(1953). Behavioral forces that are a function of attitudes and cognitive organization. *Human Relation*, 6, 273-278.
- Kenny, D. A., & Kashy, D. A.(1994). Enhanced co-orientation in the perception of friends: A social relation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24-1033.
- McAdams, D. P.(1980). A thematic coding system for the intimacy mo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4, 413-432.
- McAdams, D. P., & Constantian, C. A.(1983). Intimacy and affiliation motives in daily living: An experience sampling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851-861.
- McAdams, D. P., Healy, S., & Kraus, S.(1984). Social motives and patterns of friend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828-838.
- Mehrabian, A.(1970). Some determinants of affiliation and conformity. *Psychological Report*, 27, 19-29
- Miller, C. E., & Norman, R. M. G.(1976). Balance, agreement, and attraction in hypothetical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109-119.
- Newby-Clark, I. R., McGregor, I., & Zanna, M. P. (2002). Thinking and caring about cognitive inconsistency : When and for whom does attitudinal ambivalence feel uncomfortab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57-166.
- Newcomb, T. M.(1953).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unicative acts. *Psychological Review*, 60, 393-404.
- Newcomb, T. M.(1968). Interpersonal balance. In R. P. Abelson et al., (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A source book*. Chicago: Rand McNally and Company.
- Price, K. O., Harburg, E., & Newcomb, T. M.(1966). Psychological balance in situations of negative interperson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265-270.

Reeve, J.(1997).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2nd ed.). NY: Harcourt Brace & Company.

Rodrigues, A.(1967). Effects of balance, positivity, and agreement in triadic soci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265-270.

Zajonc, R B.(1968). Cognitive theory in social psychol-

ogy In I. G. Lindzey &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Vol. 1, pp. 320-411).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Loesley.

Zajonc, R. B., & Burnstein, E.(1965). The learning of balanced and unbalanced social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33, 153-163.

Role of Need for Affiliation in Perceptions of Triad Relation

Jae Hong, Ko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Two related studies investigated the role of need for affiliation in perception of P-O-X(two persons and one object) and P-O-Q(three persons) triad relations. Subjects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scores of Cha's *N*-affiliation Scale(1983) received 8 hypothetical triad situations. They rated each triad situation with 11-point pleasantness scale(study 1) and expectancy scale(study 2). In study 1, subjects in high *N*-affiliation group perceived balanced situation more pleasant than did unbalanced situation only in P-O-Q triads, but there is no individual difference effect in P-O-X triads. In study 2 in which dependent variable was changed to expectancy rating and were only P-O-Q triads, major results were same with them in P-O-Q triad of study 1. Above results were discussed as compared with existing results of other researches dealt with triads.

Keywords: need for affiliation, triad relation, balance effect

원고 접수 : 2002년 6월 30일

심사 통과 : 2002년 8월 1일